

Issue Brief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No.49]

발행처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발행일 : 2020. 11. 30 | 발행인 : 민무숙

제5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통해 본 제주지역 여성근로자

목
차

1. 연구개요
2. 물리적 환경 및 업무강도
3. 근로시간, 일에 대한 전망과 소득구성
4. 사회적 환경, 기술 및 재량
5. 결론 및 향후 과제

신승배¹⁾

1. 연구개요

- 본 연구는 제주지역 여성근로자의 근로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함. 이를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생산한 제5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제주지역 여성근로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실시함
- 노동시장에서 근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는 노동시장구조, 물리적 환경, 업무 강도, 노동시간, 작업특성, 공정성·소통 가능성, 폭력 및 차별, 근로환경 만족도, 일·가정 양립 및 여가활동의 기회 등이 있음. 특히, 제주지역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소규모 영세 사업체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결과적 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Eurofound에서 개발한 직업의 질 지표 개념을 응용하여 근로환경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Eurofound에서는 직업의 질(job quality)을 수치적으로 판단하고 도식화하기 위해 직업의 질에 관련된 지표를 개발했음(Eurofound, 2012). Eurofound에서 선정한 직업의 질에 관한 7가지 지표는 물리적 환경(physical environment), 업무강도(work intensity), 근로시간의 질(working time quality), 사회적 환경(social environment), 기술 및 재량(skills and discretion), 일에 대한 전망(prospects), 수입(earnings) 등으로 구성되었음
- 이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17년에 생산한 제5차 근로환경조사 자료이며, 분석대상은 제주지역 임금근로자이고, 성별 비교를 통해 여성근로자의 근로환경 실태를 살펴볼 것임. 측정지표는 <표 1>과 같음

1)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표 1 근로환경 측정지표

구분	영역	문항 내용
물리적 환경	물리적 위험	기계진동, 소음, 고온, 저온
	생물·화학적 위험	연기·먼지 흡입, 유기용제 흡입, 화학물질 접촉, 담배연기, 감염물질
	근골격계 위험	통증자세, 사람 이동, 무거운 물건 이동, 서있는 자세, 앉아 있음, 반복적인 동작
업무 강도	업무량	매우 빠른 속도로 일함(근무시간 3/4 이상), 엄격한 마감시간에 맞춰 일함(근무시간 3/4 이상), 예상치 못한 작업중단(비교적 자주 있는 편 이상)
	속도 결정 요인과 상호의존성	동료가 완료한 일, 고객의 요구, 성과 목표, 제품 이동속도, 상사의 결정
	감정적 요구	나는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한다(대부분 그렇다 또는 항상 그렇다), 화가 난 고객이나 환자, 학생을 다룸(근무시간 3/4 이상),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는 상황에 놓임(근무시간 1/4 이상)
근로 시간의 질	지속시간	주당 근로시간(주 48시간 이상), 퇴근 후 회복시간 부족(퇴근 후 출근까지 11시간 미만), 장시간 근무(하루 10시간 이상 근무)
	비정형 근무시간	밤 근무(밤 10시에서 새벽 5시까지 최소 2시간 이상 일하는 것), 토요일 근무, 일요일 근무
	근무유연성	근무시간에 개인·가족관련 일 시간 할애 가능 여부
사회적 환경	괴롭힘 및 폭력	언어폭력,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위협, 모욕적 행동, 신체적 폭력, 성희롱, 왕따/괴롭힘
	직속상사의 자질 / 태도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 일을 잘 했을 때 칭찬하고 인정해 준다, 직원들이 함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에 대해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준다, 당신이 발전하도록 격려하고 도와준다
	직장 내 지지	나의 동료들은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준다, 나의 상사는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준다
기술 및 재량	업무 특성	예상치 못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복잡하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 나의 업무에 내 생각을 적용할 수 있다(가끔 그렇다 또는 대부분 그렇다 또는 항상 그렇다)
	작업 선택 가능성	일의 순서, 작업 방법, 작업 속도/작업률
	조직 참여	작업 목표가 결정되기 전 나의 의견을 묻는다, 나의 부서나 조직의 작업 조직이나 작업 과정의 개선에 참여한다, 업무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대부분 그렇다 또는 항상 그렇다)
	교육훈련	회사가 제공하거나 비용을 대는 훈련/교육,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는 훈련/교육, 현장 훈련/교육(OJT)
향후 전망	종사상 지위	직장 내 종사상 지위(상용/임시/일용 근로자)
	일에 대한 전망	나의 직업은 경력발전에 대한 전망이 좋다, 나는 향후 6개월 안에 이 직업을 잃게 될 것이다
소득 구성	소득과 지출 균형	수입과 지출의 균형
	근로소득의 구성	고정된 기본급여, 개수급 및 능력급, 초과, 연장근무 수당/잔업수당, 열악하거나 위험한 근무조건을 보상하는 수당, 휴일수당/특근수당, 개인의 성과에 기반한 성과급, 팀/그룹/부서의 성과에 기반한 성과급, 기업의 전반적인 성과에 따른 성과급, 회사의 배당금, 다른 종류의 혜택

- 제주지역 임금근로자는 231,695명(여성 45.7%, 남성 54.3%)이고, 여성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 74.5%, 임시근로자 18.6%, 일용근로자 6.9%이며, 남성은 상용근로자 80.9%, 임시근로자 7.2%, 일용근로자 11.9%로 남녀 모두 상용근로자(여성 74.5%, 남성 80.9%)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상용 및 일용근로자 비율은 남성이 조금 더 높은 반면 **임시근로자 비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 분포는 여성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1.7%, 사무 종사자 21.7%, 단순노무 종사자 18.2%, 서비스 종사자 15.8%, 판매 종사자 9.3% 순으로 많았으며, 남성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0.1%, 사무 종사자 19.0%, 단순노무 종사자 17.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3%,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1.0%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는 여성이 더 많은 분포를 차지한 반면,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남성이 더 많은 분포를 차지함**

표 2 분석대상자 특성

구분	명(%)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임금근로자	105,821 (45.7)	125,874 (54.3)	231,695 (100.0)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78,857 (74.5)	101,837 (80.9)	180,694 (78.0)		
	임시근로자	19,637 (18.6)	9,012 (7.2)	28,649 (12.4)		
	일용근로자	7,326 (6.9)	15,025 (11.9)	22,351 (9.6)		
	계	105,821 (100.0)	125,874 (100.0)	231,695 (100.0)		
직업	관리자	- (0.0)	1,292 (1.0)	1,292 (0.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3,554 (31.7)	25,260 (20.1)	58,814 (25.4)		
	사무 종사자	22,977 (21.7)	23,865 (19.0)	46,843 (20.2)		
	서비스 종사자	16,765 (15.8)	11,205 (8.9)	27,969 (12.1)		
	판매 종사자	9,792 (9.3)	6,163 (4.9)	15,955 (6.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875 (0.8)	2,148 (1.7)	3,023 (1.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80 (1.8)	20,434 (16.3)	22,314 (9.6)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700 (0.7)	13,865 (11.0)	14,565 (6.3)		
	단순노무 종사자	19,278 (18.2)	21,315 (17.0)	40,594 (17.5)		
	계	105,821 (100.0)	125,547 (100.0)	231,36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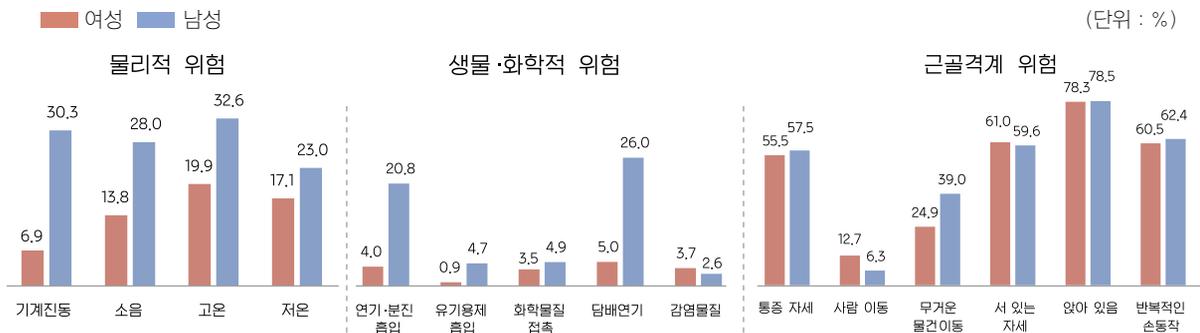
2. 물리적 환경 및 업무강도

1) 물리적 환경

■ **물리적 환경은 근골격계 위험 노출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남성의 물리적 위험 노출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 물리적 위험 노출 정도(근무시간 1/4 이상)는 여성은 모두 20% 미만인데 비해 남성은 모두 30% 전후로 남성의 물리적 위험 노출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생물·화학적 위험 노출 정도(근무시간 1/4 이상)는 담배연기(여성 5.0%, 남성 26.0%)와 연기·분진흡입(여성 4.0%, 남성 20.8%) 노출 정도가 가장 심했으며, 성별 차이가 가장 큰 위험 또한 담배연기(21.0%p)와 연기·분진흡입(16.7%p)이었음
- 근골격계 위험 노출 정도(근무시간 1/4 이상)는 물리적 위험이나 생물·화학적 위험에 비해 노출 정도가 컸으며, 앉아 있음(여성 78.3%, 남성 78.5), 서있는 자세(여성 61.0%, 남성 59.6%), 반복적인 손동작(여성 60.5%, 남성 62.4%), 통증자세(여성 55.5%, 남성 5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서있는 자세와 사람 이동(여성 12.7%, 남성 6.3%)은 여성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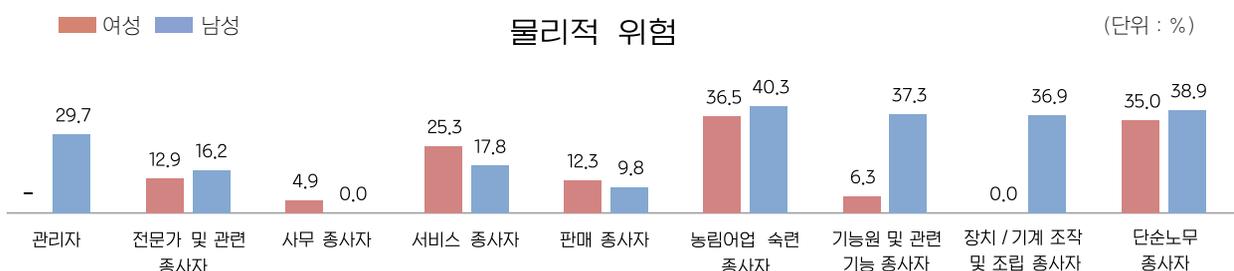
[그림 1] 물리적 환경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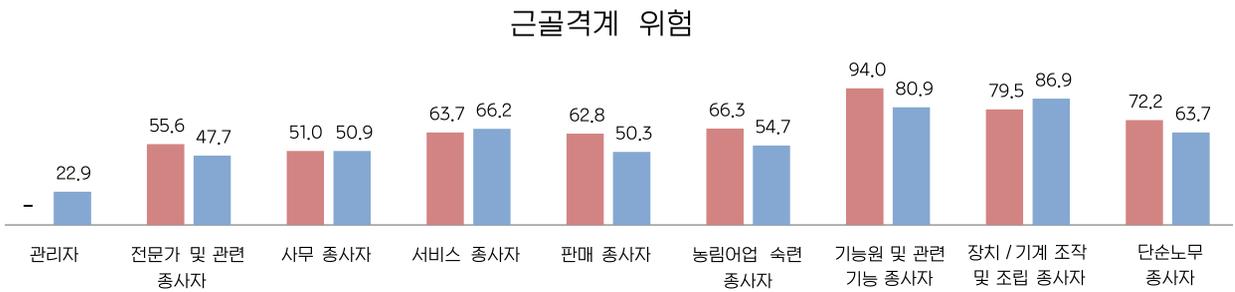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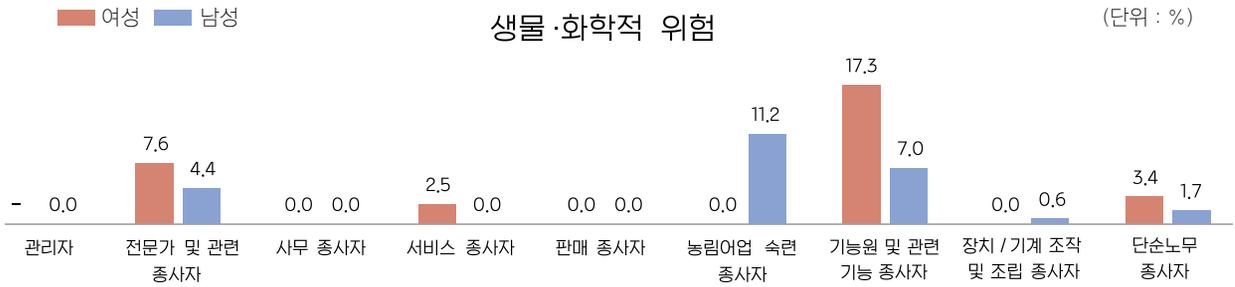


■ **물리적 위험이나 생물·화학적 위험에 비해 근골격계 위험 노출 정도는 관리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종에서 높았고, 특히 육체적 노동이 많은 직종에서 두드러짐**

- 물리적 위험 노출 정도가 가장 높은 직종은 남녀 모두 농림어업직(여성 36.5%, 남성 40.3%)과 단순노무직(여성 35.0%, 남성 38.9%)이었으며, 여성 종사자가 많은 사무직(여성 4.9%, 남성 0.0%), 서비스직(여성 25.3%, 남성 17.8%), 판매직(여성 12.3%, 남성 9.8%)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물리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 생물·화학적 위험은 다른 물리적 환경에 비해 노출 정도가 낮으며, 여성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17.3%), 남성은 농림어업직(11.2%) 종사자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 근골격계 위험 노출 정도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여성 94.0%, 남성 80.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직(여성 79.5%, 남성 86.9%), 단순노무직(여성 72.2%, 남성 63.7%) 등 블루컬러 직종에서 높게 나타났고, 서비스직(여성 63.7%, 남성 66.2%)도 다소 높게 나타남

[그림 2] 물리적 환경 - 직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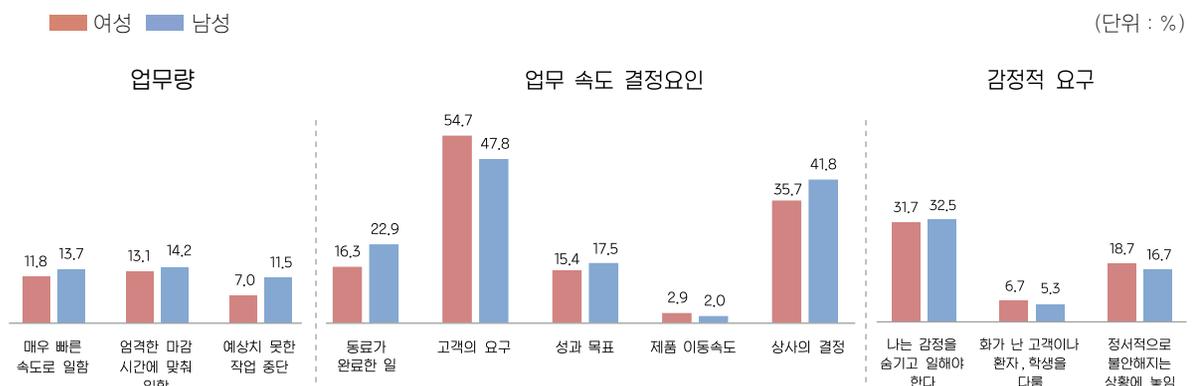


2) 업무강도

■ **업무량의 강도는 남성이 조금 더 높고, 업무 속도 결정 요인은 남녀 모두 고객의 요구와 상사의 결정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났으며, 감정적 요구 업무 강도는 남녀 모두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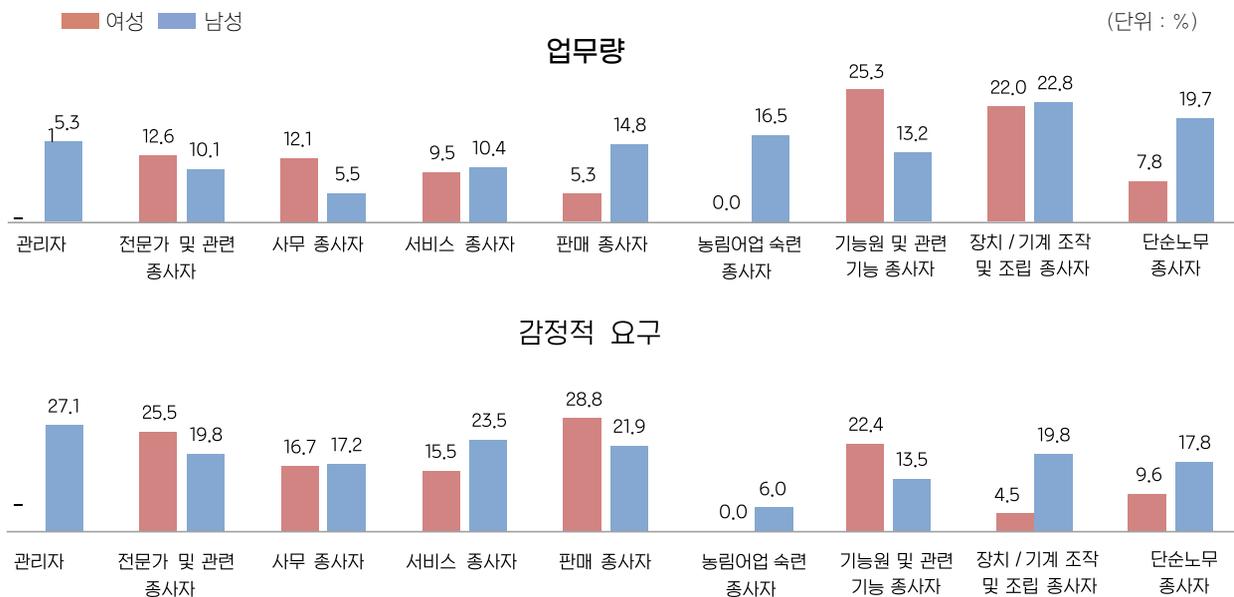
- 업무량의 강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일함(근무시간 3/4 이상) 여성 11.8%, 남성 13.7%, 엄격한 마감시간에 맞춰 일함(근무시간 3/4 이상) 여성 13.1%, 남성 14.2%, 예상치 못한 작업 중단(비교적 자주 경험) 여성 7.0%, 남성 11.5%로 남성의 업무량 강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남
- 업무 속도 결정 요인은 **고객의 요구(여성 54.7%, 남성 47.8%)**, **상사의 결정(여성 35.7%, 남성 41.8%)**으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동료가 완료한 일(여성 16.3%, 남성 22.9%), 성과목표(여성 15.4%, 남성 17.5%), **제품 이동 속도(여성 2.9%, 남성 2.0%)** 순으로 나타남
- 감정적 요구 강도는 업무 중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대부분 또는 항상 그렇다: 여성 31.7%, 남성 32.5%) 정서적으로 불안(근무시간 1/4 이상: 여성 18.7%, 남성 16.7%)한 상태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남. **화난 고객 응대나 정서적 불안은 여성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업무강도 - 성별



- **업무량의 강도는 주로 블루칼라 직군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직업별 업무량 강도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25.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22.0%), 전문가 및 관련직(12.6%) 종사자 등의 순이었고, 남성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직(22.8%), 단순노무직(19.7%), 농림어업직(16.5%) 종사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의 감정적 요구 업무 강도는 판매직(28.8%), 전문가 및 관련직(25.5%),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22.4%) 종사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남성은 관리직(27.1%), 서비스직(23.5%), 판매직(21.9%) 종사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여성 조사대상자가 없는 관리직을 제외하고 성별 차이가 가장 큰 직종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직으로 남성의 감정적 요구 부담이 15.3%p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감정적 요구 부담은 판매, 서비스직뿐만 아니라 관리직, 전문직 등 다양한 직군의 종사자들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적으로 화난 고객 응대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정서적 불안에 대한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업무강도 - 직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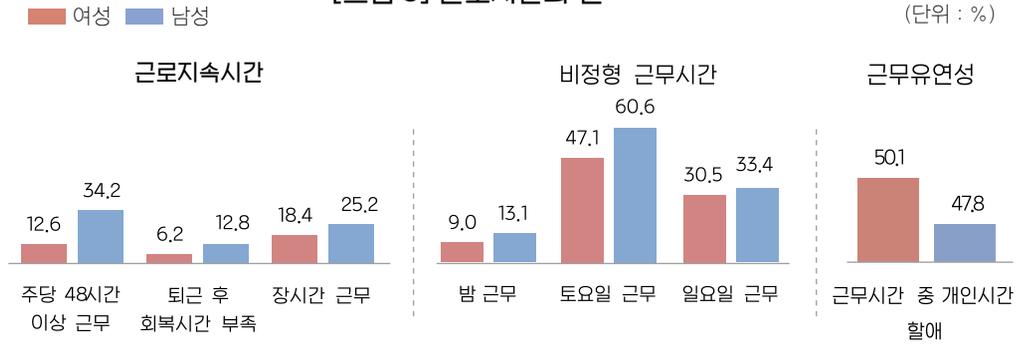
3. 근로시간, 일에 대한 전망과 소득구성

1) 근로시간의 질

- **근로 지속시간과 비정형 근무시간에 대한 부담은 남성이 더 크고, 근무유연성은 여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근로 지속시간 부담은 남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장시간 근무(18.4%), 남성은 주당 48시간 이상의 근무(34.2%)에 가장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비정형 근무시간 역시 남성의 부담이 더 크고, 남녀 모두 토요일 근무(여성 47.1%, 남성 60.6%)에 대한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일이나 가족 관계 일을 처리하기 위해 1~2시간 할애할 수 있는 근무 유연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육 및 양육을 비롯한 가사노동부담이 여성에게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임



[그림 5] 근로시간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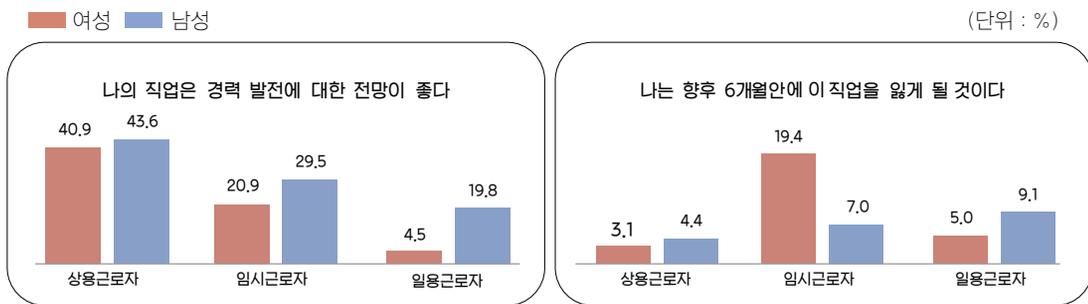


2) 일에 대한 전망

■ **종사상 지위별 일에 대한 직업 안정성 전망은 여성 일용근로자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불안은 여성 임시근로자가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남녀 모두 상용직근로자(여성 40.9%, 남성 43.6%) 비율이 높았으며, 일용직 여성근로자는 4.5%밖에 긍정적 전망을 하고 있지 않아 직업 안정성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 고용불안은 임시직 여성근로자의 19.4%가 6개월 안에 직업을 잃게 될 것임을 전망하고 있어 여성 임시/일용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6] 일에 대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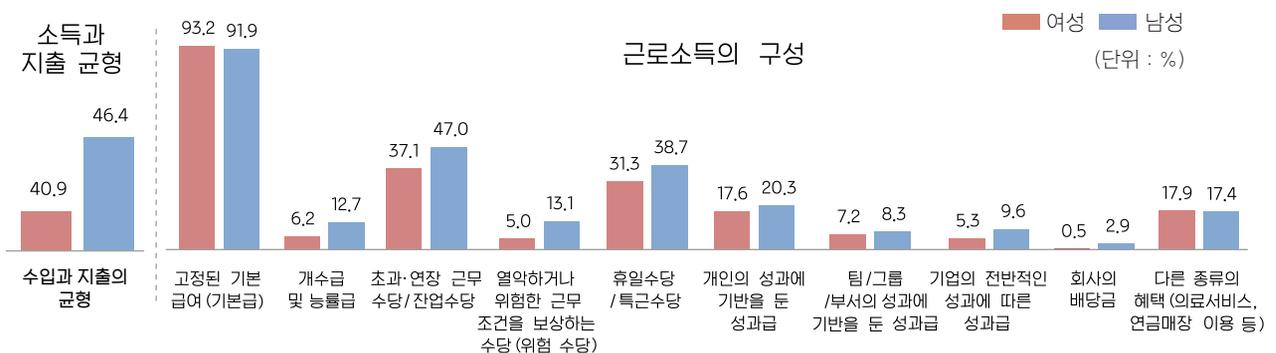
3) 소득구성

■ **소득과 지출 균형은 남성이 더 잘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소득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보장받는 비율도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수입과 지출 균형은 여성 40.9%, 남성 46.4%로 남성의 비율이 5.5%p 더 높음

■ 소득 구성요소 중 기본급이 포함(여성 93.2%, 남성 91.9%)되어 있는 경우가 남녀 모두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초과·연장·잔업수당(여성 37.1%, 남성 47.0%), 휴일·특근수당(여성 31.3%, 남성 38.7%), 개인의 성과 기반 성과급(여성 17.6%, 남성 20.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본급과 기타 혜택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는 모두 남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남

[그림 7] 소득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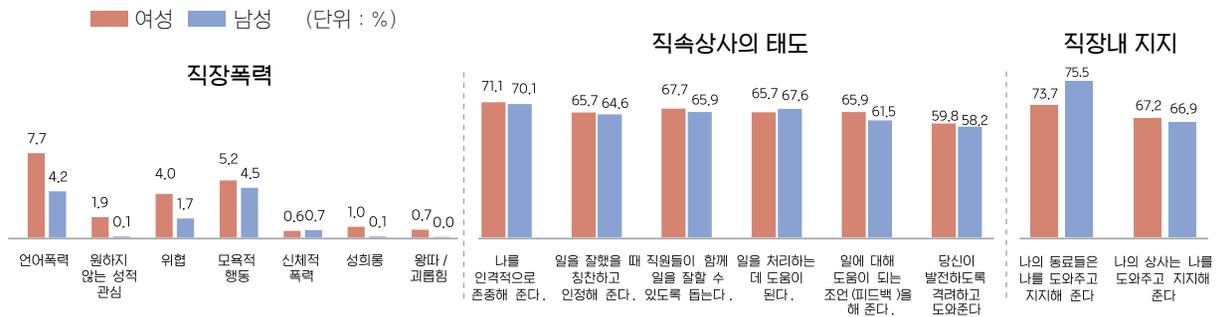
4. 사회적 환경, 기술 및 재량

1) 사회적 환경

■ **직장의 사회적 환경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성별 차이가 크지 않으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직장폭력 경험과 직장상사의 긍정적 태도 경험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남녀 모두 언어폭력(여성 7.7%, 남성 4.2%)과 모욕적 행동(여성 5.2%, 남성 4.5%)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이 중 여성의 경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성별 차이가 가장 큰 폭력 유형은 위협(여성 4.0%, 남성 1.7%)으로 여성이 2.3%p 더 높음**
- 직장상사의 긍정적 태도 경험은 모두 50% 이상으로 높았으며, 이 가운데 인격적 대우(여성 71.1%, 남성 70.1%) 경험이 가장 높고, 발전적 격려와 도움(여성 59.8%, 남성 58.2%)이 가장 낮았음
- 직장 내 지지 유형 중 동료지지(여성 73.7%, 남성 75.5%)는 남성이 더 조금 더 높고, 상사지지(여성 67.2%, 남성 66.9%)는 여성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8] 사회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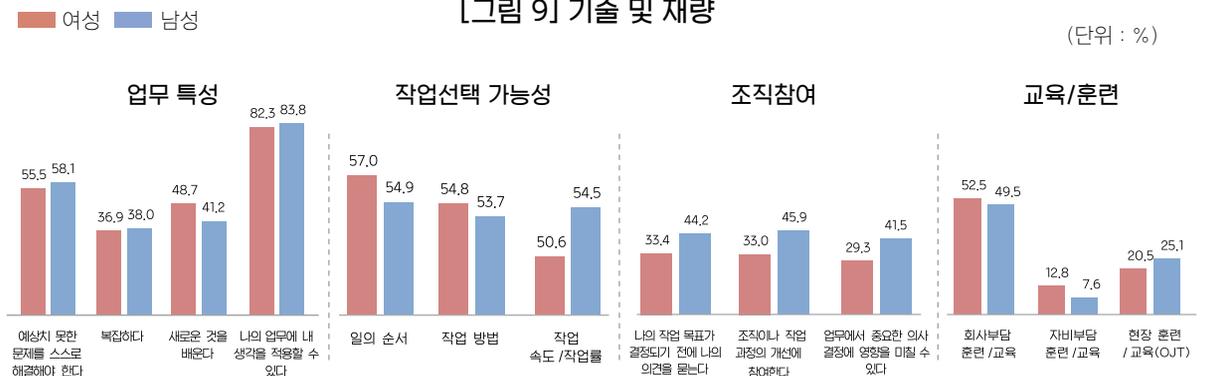


2) 기술 및 재량

■ **업무 특성 및 작업선택, 교육훈련 경험에 비해 조직참여 경험은 여성의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업무 특성 중 업무에 자기 생각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인식(여성 82.3%, 남성 83.8%)이 남녀 모두 높았으며, 업무가 복잡하다(여성 36.9%, 남성 38.0%)는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성별 차이가 가장 큰 업무 특성 인지 경험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으로 여성이 7.5%p 더 많았음**
- 작업선택 가능성은 남녀 모두 50%대로 여성은 일의 순서(57.0%), 작업방법(54.8%), 작업속도/작업률(50.6%) 순 이었고, 남성은 일의 순서(54.9%), 작업속도/작업률(54.5%), 작업 방법(53.7%) 순으로 나타나 남녀 모두 일의 순서에 대한 재량권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조직참여 경험이 평균 10%p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작업 목표 결정 전 의사반영(여성 33.4%, 남성 44.2%)이나 작업과정 개선 참여(여성 33.0%, 남성 45.9%)에 비해 중요한 의사결정 영향(여성 29.3%, 남성 41.5%)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훈련 경험은 남녀 모두 회사부담 교육/훈련(여성 52.5%, 남성 49.5%) 경험이 가장 많고, 회사 부담 및 자비부담 교육/훈련은 여성의 경험이 더 많은데 비해 현장 교육/훈련(여성 20.5%, 남성 25.1%) 경험은 남성이 더 많음

[그림 9] 기술 및 재량





5. 결론 및 향후 과제

■ 근로현장별 유해요인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사업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 독려가 필요함

- 물리적 환경 중에서 여성은 서있는 자세와 사람 이동으로 인한 근골격계 위험 경험이 남성에 비해 많을 것으로 나타났고, 직종별로도 대부분의 직종에서 여성의 근골격계 위험 노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감정적 어려움은 서비스직종에 국한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감정 및 정서관리에 중점을 둔 대응이 필요하며, 육체적 노동 기반의 직종에서 근무하는 여성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 속도 관련 부담 원인을 찾고 대응책 마련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

- 감정적 요구 부담은 판매, 서비스직 외에도 관리직, 전문직 등 다양한 직군의 종사자들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정서적 불안에 대한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여성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직 종사자는 다른 직종에 비해 업무량 부담과 업무 속도 결정 요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업무 부담 가중 우려가 있음

■ 근무시간의 지속 및 비정형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근로시간의 질적 향상 노력과 함께 여성의 고용 및 소득불안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함

- 감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지속 경험과 토요일, 일요일 등의 비정형 근무시간 경험 역시 높아 근로시간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또한 근로시간의 질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지만 상용직 비율과 일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여성이 더 낮고 부정적 전망은 여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고용불안이 더 가중되고 있음. 또한 근무시간 중 개인시간(1~2시간 개인·가족관계 일 처리) 할애 경험이 더 높은 이유는 보육 및 양육을 비롯한 가사노동 부담이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짐작케 함
- 여성은 남성에 비해 소득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비율이 낮고, 근로소득 구성요소를 보장받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상용직 비율이 남성보다 낮고, 근무시간 지속 및 비정형 근무시간 비율이 남성보다 낮기 때문일 수 있으며, 여성은 고용불안과 소득불안으로 인한 이중부담을 떠안을 수 있음

■ 언어폭력을 비롯한 직장폭력에 대한 교육 및 대응에 관한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함

- 직속 상사의 긍정적 태도 및 지지는 여성이 더 많이 경험하지만 동시에 직장폭력도 여성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언어폭력과 모욕적 행동, 위협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기술 및 재량권 사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존 성평등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이 지속되어야 함

- 여성은 일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경험이 더 많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업무에 자신의 생각을 적용하는 경험은 남성보다 다소 적었음. 작업 선택 가능성에 있어서도 일의 순서나 작업방법 선택은 여성이 더 높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만 작업속도 선택은 남성보다 낮으며, 조직참여와 현장 교육/훈련 경험 역시 남성보다 적게 나타남

■ 제주지역 여성근로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가 보다 면밀히 조사될 필요 있음

- 본 연구에서는 Eurofound에서 개발한 직업의 질 지표를 통해 제주지역 여성근로자의 근로환경을 표면적으로 살펴보았음. 하지만 2차 자료의 특성상 연구자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기에 신뢰도와 타당도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음. 향후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여성근로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가 심도 있게 연구되어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7. 「제5차 근로환경조사」 원자료.

Eurofound. 2012. 「Trends in job quality in Europe」,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